



고대구로병원뉴스

NO. 119
January 2017

발행인 은백린 발행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TEL 1577-9966 FAX 02-2626-2275
홈페이지 http://guro.kumc.or.kr 편집, 디자인 홍보팀 02-2626-2270 발행일 1월 19일 월간



고대 구로병원 교직원들이 시무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7 고대구로병원 병원장 신년사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고대 구로병원은 지금까지 믿음 주는 환자중심병원의 비전 아래 따뜻한 의술을 펼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급변하는 의료정책 속에서 숭한 어려움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구로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중심의 진료와 선도적인 첨단연구 등 내실을 충실히 다져 연구중심병원 재지정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오픈이라는 큰 수확을 얻었으며 차세대 EMR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효율화와 진료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교직원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배려와 양보, 협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2017년은 환자중심병원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원년의 해로, 전 세계적으로 100만 여명의 환자를 수술한 최첨단 방사선 수술 장비 '감마나이프'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감마나이프는 로봇 수술 장비 다빈치X와 더불어 암병원을 비롯한 여러 임상 진료과의 핵심수술분야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구로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첨단 의료 환경과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인프라 조성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현재 임상시험병동과 의생명연구센터 '아모레퍼시픽관'이 설계 중에 있으며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통한 성과, 그리고 연구를 위한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구로병원 교직원 설문을 통해 진행 중인 특성화센터를 위한 '리스타트 빌딩'을 중장기 방안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존 병원들이 갖추고 있는 일률적인 백화점식 진료에서 벗어나 관련성 높은 진료과들을 한 곳으로 묶는 특성화 센터를 통해 오로지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공간 확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직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걸어온 뒷모습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의 단점들을 찾아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스스로의 변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구로병원 교직원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교직원 모두가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함께 지혜를 모으면 세대의 바람을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저 또한 병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의 참여와 충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통해 교직원이 행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실현해 나가간다면, 글로벌 의료로 선도하는 고대 구로병원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구로병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새해에는 교직원 가족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은백린

구로병원 닭띠교직원 2017년 새해 인사말

· 간센터 변 관 수 교수



새해에는 구로병원 가족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구로병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유년은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맞는 정유년입니다. 첫 번째 정유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올해 정유년은 계획 잘 세워서 아주 활기차게 살아볼까 합니다. 2017년 새해 우리 교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 통증클리닉 정 혜 진 간호사



작년 한해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 가지 목표로 한 것들이 있는데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화합을 위해서 좀 더 유익한 모습을 갖추고 간호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책임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활의학과 서 현 두 주임물리치료사



올 한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멋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가운데도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사람만이 살길이다' 이런 마인드로 환자중심, 직원중심, 가족중심,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영양팀 김 민 영 영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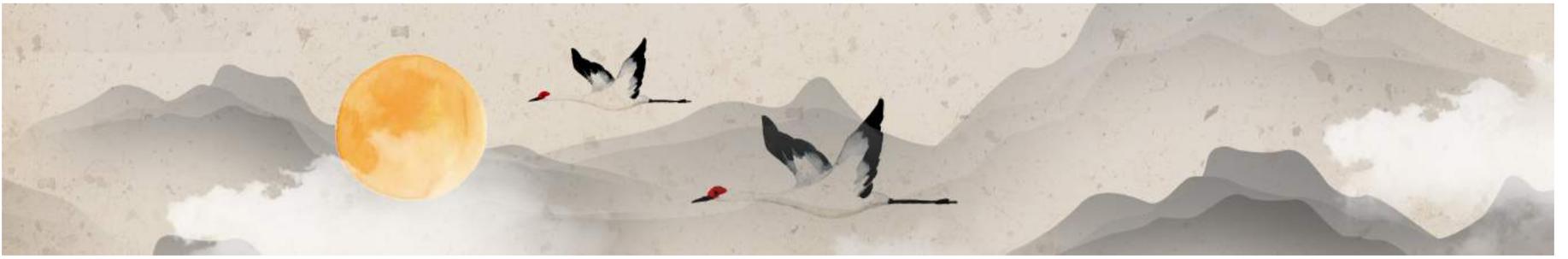
닭띠 해에는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이 황금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 김 철 유 대리



작년 한 해 구로가족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저희 기획실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구성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121건의 지식재산권 등록, 1,100편의 연구논문 발표, 16건의 기술 이전, 3개의 자회사 설립 등 교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 2016년 연구중심병원에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2.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연 6만 여명의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중증외상전담팀, 헬리포트 보유 등 서울 서남부 지역의 핵심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 온 고대 구로병원은 전 교직원이 합심해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응급전문인력,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격리외래진료실 등을 갖춘 최상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3. 차세대 EMR 오픈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인 차세대 EMR시스템이 올해 9월 오픈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모든 진료기록과 자료들이 전산화되면서 진료 편의성은 물론 의료 질 향상,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병원경영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 부서를 만나다.

〈당뇨교육실 편〉

▲ 당뇨교육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고대 구로병원 당뇨교육실에서는 당뇨 환자분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을 처음 진단 받은 분,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을 위해 당뇨병 관리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자기 관리 능력을 증진시켜 효율적으로 당뇨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 끊임없는 연구로 최상의 교육 서비스 제공

개인 교육 및 집단 교육, 전화 상담을 통해 질환의 치료 계획, 자가 간호 방법을 알려드리며 당뇨인은 물론, 일반 간호사, 타직종, 의대 학생, 간호 학생, 개원의를 대상으로 당뇨병 환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미국영양협회(ADA) 기준에 근거한 고대 구로병원만의 당뇨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의 표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분비내과 팀의 당뇨병 관련 검사 및 임상연구, 환자 관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학회에 참석하여 최신 지견 습득 및 관련서적, 최신 Journal, 잡

지를 통한 새로운 정보 습득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합병증의 조기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치료 실시

당뇨병은 합병증 조기발견과 예방,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대 구로병원에서는 여러 합병증 검사에 필요한 최신 장비들을 센터 내에 갖추고 합병증의 조기 진단과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의 처방 하에 정기적으로 합병증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로 발견된 합병증에 대해서는 안과, 신장내과, 성형외과 등 당뇨병과 연계된 진료과의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혈당 변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72시간 연속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CGMS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뇨교육실의 한마디

당뇨병 관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리 방법, 식사 요법, 운동 요법, 약물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고대 구로병원 당뇨교육실은 의료 전문가들과 상호 연계하여 여러분의 당뇨병 관리에 있어 필요한 임상적 관리 방법, 조언 및 건강 관리자 교육, 생활 방식 변화 방법 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믿고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대 구로병원만의 특별한 당뇨교육 서비스

1. 개인 당뇨 관리 교육

개별화된 맞춤형 생활습관 교육으로 평생의 건강을 찾는다! 담당의의 처방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 일시 : 평일 오전 9시~ 5시

* 장소 : 신관 지하 1층 당뇨 센터 내 당뇨 교육실

* 대상자 : 당뇨 전단계 환자
당뇨병을 처음 진단 받았거나
조절 안되는 당뇨인

* 프로그램

- 당뇨 전담 간호사 : 생활 습관을 평가한 후 운동 요법, 인슐린 주사법, 경구약 복용, 저혈당 대처법, SMBG, 발관리법 등의 생활 개선 요법 교육
- 당뇨 전담 영양사 :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나에게 맞는 식사량, 올바른 식품 선택 방법 및 식사 시 주의 사항 등 교육

2. 무료 당뇨 교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실시하며 무료 교육으로 특별한 접수 절차는 없습니다.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4주 코스)

* 장소 : 신관 지하 1층 핵의학과 옆 시청각 교육실

* 대상자 :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당뇨병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가능

3. 당뇨 조식회

당뇨 뷔페를 통해 당뇨 식이 요법을 본인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

* 장소 : 신관 지하 2층 직원 식당

* 예약 : 담당의 처방 후 예약으로 진행

4. 운동 처방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의 종류, 강도, 시간 등에 관하여 운동 처방사의 운동 처방으로 구체적인 운동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담당의의 처방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 장소 : 신관 지하 1층 스포츠 의학실

* 일시 : 담당의 처방 후 진료 당일 또는 예약으로 진행

녹십자 의료재단, 랩셀, 지놈 MOU 체결



고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은 12월 15일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녹십자 랩셀, 녹십자 지놈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연구와 사업분야 융합을 위해 진행됐으며 공동연구 수행, 인력교류, 상호 간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공동 활용, 학술 및 기술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은백린 병원장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속에 병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녹십자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구로병원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융합하여 양 기관이 진취적인 성과를 이루고 국내보건의료분야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3월 연구중심병원에 재지정된 고대 구로병원은 백신, 의료기기, 암치료제, 재생의학의 4대 중점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 수준 높은 전문성 입증



고대 구로병원 약제팀(팀장 김영미)이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미국약사협회에서 실시한 전문 약사 자격시험을 줄줄이 통과하면서 임상 약사들의 수준 높은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 해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2016 제 7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총 6개 분야, 6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주관 QCRP(Qualified Clinical Research Pharmacist)에서 고대 구로병원 약사 3명이 전문약사 자격을 획득했고, 약사 1명이 미 전문약사 자격시험(BPS)에서 중환자약료 Board Certified Critical Care Pharmacist (BCCCP)분야의 자격을 획득했다.

이번 자격증 취득에 힘입어 고대 구로병원은 이제 총 8개 분야에서 16명의 전문약사가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이즈와 의료기기 개발 협력 MOU 체결



고대 구로병원이 12월 27일(화)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바이오 진단기업 (주)바이오이즈(대표이사 김성천)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내 임상시험 및 다국가 임상시험 실시 ▲신개발 의료기기의 국내외 규제 기관 등록을 위한 임상기술 지도 ▲신개발 의료기기의 국제 규격 인정을 위한 임상기술 지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은백린 원장은 "구로병원은 2009년에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단일병원으로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되어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진출을 돕는 등 오랜 기간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며 "이번 바이오이즈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진료지침(CP) 우수과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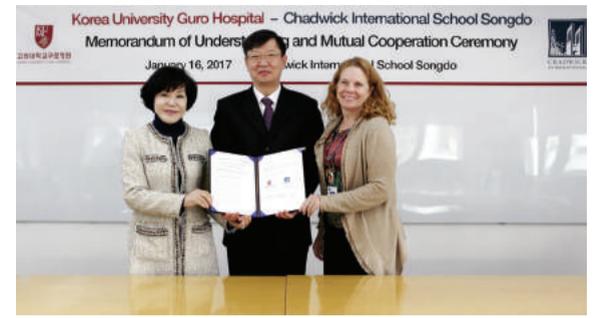
고대 구로병원이 12월 26일(월) 신관 3층 회의실에서 2016년 3월에서 10월까지 각 진료과에서 실행했던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의 성과 및 적용률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낸 총 4개 과에 표창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최우수상은 적용률 99%, 적용건수 740건에 달하는 안과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에는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방사선종양학과가 선정되었다.

표준진료지침이란 환자의 진료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질환, 증상, 연령 등 다각도의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표준화된 치료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표준진료지침의 정착은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치료 과정을 통일화하여 과잉진료를 배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여 많은 병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은 2011년부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하여 표준진료지침을 11개 진료과에서 29개의 CP를 개발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적용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진료과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MOU체결



고대 구로병원은 1월 16일(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Songdo)와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고대 구로병원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학생들의 공식 주치의가 되어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긴급 후속 조치와 학업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통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 상담, 교수 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은백린 병원장은 "우리 고려대학교 병원은 국내 최초 여자의학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의 정신을 이어받아 1928년 설립되었다"며 "민족사학과 후학 양성을 근간으로 삼는 고대 구로병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꿈을 키우고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랑의 기부금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달 받아



고대 구로병원이 12월 26일(월) 행정동 3층 원장 접견실에서 고대 의료원 노동조합으로부터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 500만 원을 기부 받았다.

전달식에는 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 흥세나 고대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수술비와 입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흥세나 지부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연말을 맞아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은백린 병원장은 "고대 구로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 환원 사업과 공공의료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노조에서 마련한 기부금은 우리 고대 의료원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사랑의 결실인 만큼 좋은 곳에 뜻 깊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구중심병원 고대 구로병원, '정밀의학 심포지엄' 개최해 미래 맞춤 의료 선도

고대 구로병원은 1월 11일(수) 신관 10층 회의실에서 '정밀의학 심포지엄' 을 개최해 정밀의학의 국내외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지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밀의학은 환자의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종합적인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의료 서비스의 기틀이 되는 학문이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를 필두로 고대 구로병원 의료진들과 삼성서울병원 기창석 교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유수영 교수 등 국내 정밀의학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인 녹십자 지놈, 바이오이즈, 싸이토젠, Thermo Fisher도 함께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정밀의학을 이용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인플루엔자 FAQ

인플루엔자가 무슨 병입니까?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 통로(코, 목, 폐)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기'와는 다르게 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생명에 위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이 한해 평균 2만명이며 11만명 이상이 입원을 하게 되는 만만치 않은 병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 기침, 인후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38°C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확진이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 시작 후 5일간 격리됩니다. 격리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기침예절과 손위생(기침 시 입을 가리고 시행, 기침 후 손위생 실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인플루엔자, RSV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모두를 배려하는 첫 걸음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가리지 않고 휴지로 입이나 코를 막기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휴지가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 탈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행성 심부전증이나 천식, 당뇨 등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부비동염과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인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대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유행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노인, 면역결핍자 또는 억제제, 만성 질환자 등)와 환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예방 주사를 맞도록 추천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가 예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나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독감과 다른 호흡기 감염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정확한 진단은 증상 발생 후 처음 2-3일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감기는 parainfluenza virus 1, 2, 3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denovirus, rhinovirus, coronavirus, echovirus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상기도염을 말하며, 보통 2-5일만에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며, 독감 예방주사는 이 바이러스 중 일부 항원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으며, 인플루엔자일 경우에도 아형이 다른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잘못 맞으면 독감에 걸릴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백신에 사용되는 바이러스는 죽이거나 약화시킨 바이러스로 질병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는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나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예방주사로 입원횟수를 줄이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맞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속적인 변이를 통하여 아형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아형에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됩니다. 따라서 위험군의 경우에는 매년 맞는 것을 권합니다.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약이 있다면?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는 몇 가지 안되는 바이러스 중의 하나가 인플루엔자입니다. amantadine, rimantadine, oseltamivir라는 항바이러스제제가 개발되어 있으나 이것이 독감 예방주사의 효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어서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게 합니다. 실제 약을 사용할 지의 여부는 담당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십시오.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음주나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제를 복용할 수도 있으나 합병증이 없는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는

아스피린을 사용해도 되나요?

독감 증상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의사의 자문없이 아스피린을 주지 마십시오. 특히 열이 나는 경우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라이씨 증후군(Rye syndrome)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글, 원네기자 이혜림 간호부

생생건강

간지러운 팔다리, 피부염 유발 위험



겨울이 되면 매서운 찬바람과 뜨거운 히터 바람,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보다 낮은 습도 때문에 '피부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특히 건선이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라면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게다가 이런 가려움증도 문제가 되지만 계속해서 굵게 되면 이차적인 피부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피부건조증은 주로 다리와 팔에 많이 나타나지만 몸이나 얼굴 등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증세가 심해지면 따끔거리는 통증과 함께 눈바닥이 갈라지는 것과 유사하게 피부 표면이 변하게 된다. 더 악화되면 자세

를 바꿀 때마다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당기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피부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기도 한다.

피부건조증을 가볍게 여겨 그대로 방치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약을 구입해 바르게 되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피부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각질층의 수분손실을 최소화하고 꾸준한 수분공급을 위해 보습제를 발라주며 실내 공기의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도움말 : 피부과 전지현 교수)

겨울철 소리 없는 살인자,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졸중은 뇌 내부의 혈관에 문제가 생겨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액이 차단되거나 터져서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다. 뇌졸중은 50대 이후 중년 및 노년층에게서 호발하고 돌연사를 부르는 주원인이 되므로 무엇보다도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은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며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는 증상을 들 수 있다. 또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리고 이전에 느끼지 못한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도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처리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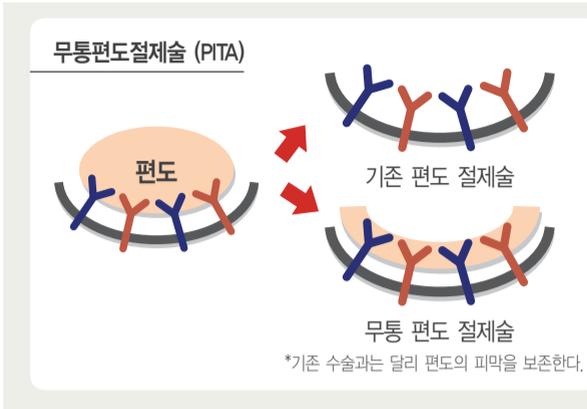
뇌졸중은 뇌기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폐렴, 욕창,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도 동반할 수 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우리 몸의 말초동맥이 수축돼 혈압이 높아지면서 뇌졸중 발병 확률이 커지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방한에 신경 쓰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도움말 : 뇌신경센터 김치경 교수)

코골이 · 입 벌려 숨 쉬는 우리 아이, 어떻게 치료하나요?

- 편도 비대, 호흡 장애 · 코골이, 발육부진의 원인
- 무통편도절제술(PTA)로 통증 없이 치료



무통편도절제술의 장점

- 20~30분 정도의 짧은 수술 시간
- 빠른 회복 속도, 3일 입원, 일상복귀 가능
- 수술 후 3일 후부터 정상적인 식사 가능(기존 수술의 경우 2주 후부터 가능)

편도 · 아데노이드 수술은?

Q 전신마취를 한다던데 아이에게 위험하진 않을까요?

A 편도절제술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6만 건이 시행될 정도로 보편적이고 안전한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모니터링 기기와 마취제를 사용하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Q 편도를 잘라내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A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문제가 없는 아동들의 경우 수술로 제거하여도 전신적인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편도 · 아데노이드비대 성장저하, 얼굴 변형 초래해

평소 아이가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고 밤에는 심하게 코를 골며 무호흡이 있다면 편도 비대를 의심해 봐야 한다.

편도조직은 구강 및 비인강에 위치하고 있는 면역기관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편도선이라 부르는 목젖 양측에 위치한 구개편도와 목젖 위쪽에 쉽게 보이지 않는 아데노이드라 부르는 인두편도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여러 종류의 편도들이 입 안 뒤쪽 부근에 고리처럼 둥근 모양으로 퍼져있으며 편도의 발육은 생후 2~3개월에 시작돼 5~10세 때까지 계속되다가 사춘기 이후 점차 퇴화한다.

그러나 편도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심한 코 막힘, 구강호흡, 코골이, 수면무호흡, 아노증 등을 호소한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코막힘으로 인한 구강호흡은 얼굴형 변형도 초래할 수 있는데 입으로 계속 숨을 쉬게 되면 입천장이 좁고 높게 변해 윗니가 돌출되고 윗입술이 들리게 된다. 혀와 아래턱을 뒤쪽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작용해 아래턱 성장도 느려진다. 이런 일그러진 얼굴을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하는데 우둔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어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하를 유발하여 발육부진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인지와 집중력 저하로 학습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통증 · 후유증 없는 간단한 치료, 무통편도절제술

편도 · 아데노이드 비대가 발생하여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심한 코골이나 호흡장애, 수면무호흡, 발육부진, 잦은 편도염을 앓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대개 편도 비대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전인 만 5~10세에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하다 하더라도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부모로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편도 수술 시의 통증을 견딜 수 있을지, 수술 이후 회복기 동안의 고통을 참을 수 있을지 염려되어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술의 통증 및 출혈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고 수술 후 회복 속도도 높은 최신 수술법 '무통편도절제술(PTA)'이라면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무통편도절제술이란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편도를 싸고 있는 편도 피막은 보존하면서 미세절제음기로 편도 내부 조직만을 90% 이상 제거하는 수술이다. 인두근육과 편도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아 출혈과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존 편도 절제술의 경우 수술 후 통증 때문에 한동안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했지만 무통편도절제술을 이용하면 수술 직후에도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수술은 수술 후 약 2주간 통증이 지속됐으나, 무통편도절제술은 1~2일 정도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도움말 : 이비인후과 송재준 교수)
문의 : 02. 2626. 1280

청춘의 또 다른 이름, 고대병원

고대병원을 지켜온 강 씨 집안 세 남자 이야기

"처음에는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며 마음에 품어온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라 간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작년에 실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현구(구로병원 교육수련부) 씨의 얼굴에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작년 9월, 입사한 현구 씨는 현재 교육수련부에서 근무하며 고대 구로병원의 수련의, 전공의, 임상강사 분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병원 생활을 돕고 우수한 의료진 채용에 힘쓰고 있다. 이제 겨우 입사 6개월 차의 그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고대 구로병원과의 떼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인연을 숨겨 놓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 모두 고대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959년에 입사하여 81년에 정년퇴직 하셨고 아버지는 83년 구로병원 개원 멤버로 입사해 근 30년간 근무하신 후 퇴직하셨습니다."

그의 조부 강강성진 씨는 1957년 수도 의과대학 부속병원 시절 시설팀 전기설비 담당으로 입사하여 198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해화병원에서 정년퇴직하였다. 그리고 강강성진 씨의 뒤를 이어 그의 아버지 강명수 씨가 1983년 구로병원 개원 시 입사하여 개원 멤버로 활약하다 구로병원에서 17년, 안양병원에서 12년 11개월간 근무하다가 2012년 7월에 명예 퇴직하였다. 강 씨 집안 3대가 고대병원과 인생을 함께 해 온 셈이다.

"말도 마세요. 그 당시엔 이 주변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광시골이었어요. 드문드

문 그제야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는걸요. 그런 곳에 구로병원이 지어졌으니 얼마나 신세계였겠습니까. 거기다 그 당시에도 최고의 시설이었으니 구로동 지역민들 모두 모여들어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죠."

모래 바람 풀풀 날리는 행딩그랑했던 1983년을 회상하는 현구 씨의 아버지 강명수 씨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의료 불모지에 자리를 잡고 뼈대를 쌓아올린 구로병원의 시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그는, 그 당시를 어떻게 기억할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직원들은 정말 한 집안 식구들 같았습니다. 교직원들 모두 내 부서, 네 부서 따지지 않고 단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했었어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성공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밤낮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병원은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놀이터가 되어 주었고 성인이 되고부터는 청춘을 보냈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죠."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근무하던 병원을 놀이터 삼아 커왔던 명수 씨는 직업을 정해야 했던 20대 때 주저 없이 고대병원에 입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하시던 일 그대로, 전기 설비를 담당하기로 말이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냐고 했던가. 그런 그를 썩 빼닮은 아들 현구 씨가 20대의 그처럼 아버지의 전 직장, 고대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던 소식을 전해왔다.

"처음에 현구가 구로병원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일했던 병원에 제 아들이 근무한다니요. 3대가 몸담는 기업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다 문득 제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습



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한 없이 기쁜 일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는 듯한 아버지의 이야기에 괜스레 미적은 웃음을 짓던 현구 씨가 슬쩍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가 작년 8월이었는데 10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할 수 없지만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뒤를 따라 고대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손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 같아요."

아버지가 늘 말씀해 주셨던 고대병원 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취업 이후 확실히 깨달

게 되었다는 현구 씨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고대병원 만의 끈끈한 유대감과 주인의식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따르길 정말 잘한 것 같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사실 이걸 좀 억지지만, 우리 현구는 태어날 때부터 구로병원에 입사할 운명이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녀석이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하하하"

유쾌하게 웃는 두 남자의 모습에서 남다른 부자간의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대를 이어 고대병원에서 청춘을 보내고, 또 앞으로 청춘을 보낼 강 씨 집안 세남의 이야기가 이 추운겨울을 감싸주는 포근한 선물처럼 다가왔다.

구로병원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옛 것을 소개하는 코너

양방향의 친절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던 나는 입사해서 처음에는
 친절한 간호사는 그저 환자에게 미소 지으며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하루하루 일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친절과 미소는 무조건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가끔 병문안을 가게 될 때면 간호사들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항상 미소를 지으며 환자들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미소만 있을 뿐 말투와 행동에는 표정과 어울리지 않은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말투는 사무적이고 간호 행위는 아무 설명 없이 진행되었다. 그럴 때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 그 간호행위에 대해 궁금해 했고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어떤 처치를 하는지 물어보면 "잠시만요"나 "전 잘 모르겠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라는 대답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직접 보호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런 간호 서비스를 받고 나니 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었다. 혹시 나도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환자들이 나의 간호 서비스에 만족을 느꼈을까? 내가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의 마음가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제공했을 뿐 환자의 편에서 환자의 마음을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았다.

정맥주사를 놓을 때도 나는 매일 하는 것이다 보니 사무적인 말투로 "아픕니다. 따끔합니다."의 말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 했고 환자가 느끼는 직접적인 고통은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가끔 항생제를 맞을 때 아프다고 하는 환자들에게도 "아플 수 있어요"라는 말로 넘어간 적이 많았던 것 같다. 나는 이러한 말들로 환자에게 공감해 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환자들에게 베풀고 있던 친절은 나만 느끼는 일방적인 친절이었다. 할머니의 병문안 후 나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중년분은 어머니, 아버지, 젊은 연령층은 사촌,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며 가족에게 간호를 하듯이 진정한 친절을 베풀며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고 환자들을 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간호사의 업무 속에서 여유로운 친절을 베풀기는 참 어려웠다. 그래도 간호행위를 할 때마다 환자에게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많이 공감하며 환자의 안부도 자주 물으려고 노력하였다.

처음보다 좀 더 여유가 생긴 요즘은 환자, 보호자들과 더 많은 이야기도 하고 라포도 많이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은 신규라서 손도 느리고 환자, 보호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많이 서툴지만 환자분들이 퇴원할 때 "그동안 잘 돌봐줘서 고맙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 다 선생님들 덕분이다." "간호사선생님들 일하느라 힘드시죠"하며 주스 1병을 건네주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내가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친절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낀다. 최근에는 내가 먼저 환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것이 환자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기로 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내가 보호자로서 느꼈던 것들을 환자들에게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베풀니 더 잘 공감하며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친절을 베풀다고 생각하면서 환자를 대하는 일방적인 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다. 환자가 나의 행동에서 친절을 느꼈을 때 그것이 바로 양방향적인 친절이고 진정한 친절이다. 🍎

6병동 간호사 박다혜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선진 의료 서비스 선도



고대 구로병원이 들어서던 1983년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의료 장비의 개발이 턱없이 미흡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오로지 의사의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하여 수술을 진행해야 했다. 덕분에 병원 선택에 있어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일찌감치 파악한 구로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환자들이 언제나 믿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뛰어난 의료진들을 대거 초빙하여 전진 배치시키고 당시로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장비들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펼쳤다.

이런 노력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이어져, 2015년에는 현존 최고 사양인 제 4세대 수술로봇 '다빈치Xi'를 도입하여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로봇수술은 기술적 한계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위의 수술을 가능케 했으며, 최소침습적 수술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어 수술의 성공률과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구로병원은 내달 중순에는 최첨단 방사선 수술 장비인 '감마나이프 퍼펙션'을 도입하여 새로운 첨단 의료 서비스를 펼쳐 나갈 예정이다. 🍎



칭찬열차



104호 칭찬열차 주인공

심장초음파실 책임간호조무사 최 경 숙

중앙혈액내과 서재홍님이 심장초음파실 최경숙님을 추천합니다. 중앙혈액내과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초음파실의 최경숙 선생님께서는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시며, 항상 친절하고 응대와 성실한 근무태도에 추천합니다. 🍎



104호 칭찬열차 주인공

원무팀 대리 전 명 희

소아청소년과 김순희님이 원무팀 전명희님을 추천합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하시며,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응대해주십니다. 솔선수범 하시는 따뜻한 마음에 항상 감사드리며 추천합니다. 🍎

칭찬열차 주인공 10문10답

- Q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A 검사예약 및 접수·전화응대·검사지원 업무입니다.
- Q 존경하는 사람은?
A 부모님, 시어머님.
- Q 최근 가장 관심 있는건?
A 대학 입시 정보
- Q 추천하고 싶은 영화 또는 음악은?
A 영화 : 사운드 오브 뮤직
- Q 추천하고 싶은 맛집은?
A 없음.
- Q 여행 가보고 싶은 나라는?
A 호주
- Q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A 20살 때.
- Q 10년 후 나의 모습은?
A 열심히 일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다.
- Q 칭찬열차에 당첨된 소감은?
A 모든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Q 고대 구로병원에 하고 싶은 이야기?
A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과 환자분들의 치료에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칭찬열차 주인공 10문10답

- Q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A 입·퇴원계에서 입원과 퇴원 업무
- Q 존경하는 사람은?
A 이강희 경영관리 실장님
- Q 최근 가장 관심 있는건?
A 떡볶이
- Q 추천하고 싶은 영화 또는 음악은?
A 타이타닉
- Q 추천하고 싶은 맛집은?
A 과천 순대국집
- Q 여행 가보고 싶은 나라는?
A 스위스
- Q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A 입사했던 19살 그때
- Q 10년 후 나의 모습은?
A 손자 손녀와 오손도손
- Q 칭찬열차에 당첨된 소감은?
A 감개무량합니다. 더 대단하시고 본받을 분들이 많은데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 Q 고대 구로병원에 하고 싶은 이야기?
A 항상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행복한 직장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 사진, 원내기자 최원의 핵의학과

01 January 2017

수요웰빙강좌 02.2626.1540
 · 4일 금연
 · 11일 비만과 대사증후군
 · 18일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 25일 림프부종 및 암환자 건강관리

당뇨교육 02.2626.1091
 · 5일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 12일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 19일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 26일 목표혈당과 혈당측정법, 발관리, 당뇨병과 사회복지 정보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2	3	4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5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6
9	10	11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12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13
16	17	18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19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20
23	24	25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26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27
30	31			

02 February 2017

수요웰빙강좌 02.2626.1540
 · 1일 금연
 · 8일 비만과 대사증후군
 · 15일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 22일 림프부종 및 암환자 건강관리

당뇨교육 02.2626.1091
 · 2일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 9일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 16일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 23일 목표혈당과 혈당측정법, 발관리, 당뇨병과 사회복지 정보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1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2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3
6	7	8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9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10
13	14	15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16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17
20	21	22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23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24
27	28			

쉽고 편한 병원이용 TIP

영상CD등록기

영상 CD 등록기를 이용하시면 MRI, X-ray 등의 영상 검사 결과를 환자나 보호자가 별도의 기다림 없이 직접 차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번호표를 뽑거나 순번을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없고 빠른 등록이 가능해 진료 대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문의

만약 CD 등록에 문제가 있거나 기기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관 1층 영상의학과 의료영상자료 접수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

장 소	
본관 1층	원무데스크 왼편 자동 수납기기 옆(2대)
신관 1층	영상의학과 접수창구 왼편(1대)
신관 3층	암병동(1대)



